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83.90	↑ 코스닥	1116.41
	(+490.36)		(+137.97)
↓ 금리 (연이자율)	3.189	↓ 환율 (원/달러)	1464.40
	(-0.034)		(-11.80)

metro® 경제

SK 최태원
젠스 황 다시 만난다
HBM 공급 논의
04



하루 만에 9.63% 되찾은 '롤러코스피'

중동발 폭격서 '반등'

490.36p 오른 5583.90 마감
유가에 민감·반도체 편중 구조
글로벌 대비 유독 등락 폭 커

-7.24%, -12.06%, +9.63%. 국내 증시가 사흘간(3~5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터진 후 하루 건너 매·수도 사이드카가 반복됐다. 4일에는 폭락세가 거세지자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솔링'이 강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2·3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37.97포인트(14.10%)된 1116.41에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는 전날 '검은 화·수요일' 대폭락에 맞선 반발 매수세가 거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주식을 싸게 사들이려는 투자자의 매수 주문이 과열 양상을 보면서 양쪽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됐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48%나 오르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이후 18.4%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하락률은 미국 S&P500(-0.9%), 독일(-5.9%), 영국(-3.9%) 등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중동산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7.8%), 대

만(-7.3%) 등의 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 유독 한국 증시가 이란 전쟁 이슈에 더 많이 흔들렸다는 평가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안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유가(두바이유)는 전쟁 직전 배럴당 71.81달러 수준이었

는데, 3일에는 8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과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질 우려가 크다. 반도체에 편중된 시장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재산권·직업의 자유 등 위험 소지”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고
시장 경쟁력 훼손 '업계 반발'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등의 이유로 위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험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로 성장해 왔고,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기에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이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헌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타당성에서도 논란이 커 입법 이전에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도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면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정당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일을 새로 만든 법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험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美·유럽·日 등 글로벌 오송 프로젝트 시동”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주 '오송 캠퍼스' 개소식 “오가노이드, 손상조직 재생 동물실험 대체, 첨단 모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송 캠퍼스'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오송 캠퍼스' 개소식을 가졌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 캠퍼스를 기반으로 시즌 2를 여는, '오송 프로젝트(OS-Ong)'의 비전을 공개했다. 오송 프로젝트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기술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한다'는 뜻을 담았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와 오상훈 대표(왼쪽 다섯번째, 여섯번째)가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오송 캠퍼스'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대표는 "오송 프로젝트는 그동안 검증 받은 오가노이드 기술들을 세계 곳곳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태국 등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가진 기술을 세계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에 모인 국내외 석학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송 캠퍼스 이전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권석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단순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표준화까지 선점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종상 툴젠 대표는 "오송 캠퍼스가 오가노이드의 새로운 혁신 요람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지는 키노트 세션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이 '한국 바이오의 미래 로드맵'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영주 명예교수가 '오가노이드와 정밀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유종만 대표는 "오송 캠퍼스는 단순한 연구 시설이 아닌 국가가 인정한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가노이드 클러스터'의 앵커 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주요 포인트"라며, "충북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와 결합해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대통령경호처, 북악산 탐방 전면 개방... 탐방 안내소 재개 /사진 뉴스1
- ▲ 익산시장 최정호·박경철, 남원시장 이정린 출마 선언

- ▲ 산불 발생, 3~4월 '봄철' 집중...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 ▲ 생명지킴추진본부, 17개 광역센터와 핫라인... 자살예방 총력

- ▲ 이 대통령 사칭 담화문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 ▲ 이 대통령 "기업, 수도권으로 전기 끌어오는 비용 세금으로 혜택... 전기요금 차등제 고민해야"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기업 추가 지원책 제공

정부·재계, 중동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 특별점검
및,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당정은 재계와 중동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 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로 원유와 가스 분야별 대응책이 추진된다. 원유는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사전 준비,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현안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HD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한화오션 등 관계 기업이 참석했다. /뉴시스

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한 현물 구매 전략을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검토한다.

이에 앞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

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

(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에너지 해운 등 산업은 물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1면 '하루만에 9.63%'서 계속

한은, '1500원대 환율' 진화나서... "달러 유동성 풍부"

'외환보유·가산금리·CDS' 안정 강조
유가 충격 여전... 구조적 불안 우려도

원·달러 환율이 역외·야간 거래에서 1500원선을 터치하자 한국은행은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차입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라며 '방어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지만 원화가 반등했음에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환율 급등의 본질이 '유동성 검색'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면 변동성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문이 남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4일) 원·달러는 역외·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5.8원까지 치솟아 17년 만의 약세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12.06% 급락해 5093.54로 마감하는 등 주가와 환율이 함께 흔들려 '리스크오프'가 전면화했다. 5일 들어서는 코스피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들여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 급등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강조한 '3개 방어선'은 위기의 성격을 가르는 지표들이다. 달러 유동성은 기업·금융기관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결제·조달이 막히는 검색 여부를 뜻한다.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한국이 달러를 빌릴 때 붙는 추가 비용(스프레드)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료로, 급등할수록 시장이 '위기 프리미엄(리스크 프리미엄 확대)'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메시지는 "지금 은 조달 검색형 위기와는 다르다"는 진단에 가깝다.

'유동성'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7억2000만달러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은은 "ESF 외화채 발행과 투자 수익이 증가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의 뿌리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위험회피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실제로 유가 충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브렌트유는 83달러대(83.07달러), WTI는 76달러대(76.60달러)로 상승했고,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 공급 제약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달러지수는 98.81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유가

가 다시 물가 기대를 밀어 올리면 '달러 강세→원화 약세' 압력은 재점화될 수 있다.

관건은 1500원선이 '일회성 공포'였는지, 아니면 에너지·지정학 리스크가 만든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커진 신호였는지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유가·리스크오프가 재점화될 경우 환율은 다시 속도와 쏠림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 한은이 내세운 방어선(유동성·스프레드·CDS)이 실제로 유지되는지에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최예찬 상산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중동 무력 이슈 발생 후 원·달러 환율은 90일 전후까지 쉽게 레벨을 낮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번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환율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반복되는 급등·급락 시장 공포심리 확산

지수 상승에 대한 두 기업의 기여도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대에서 마감한 뒤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연초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상승률은 48%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 기여한 비율(시가총액 기준)은 각각 약 33%와 20%였다. 두 기업의 기여도를 합하면 약 53%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두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급에 코스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스피 개인투자자 비중(거래량 기준)이 올해 기준 약 67%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점도 한몫한다. 코스닥은 78%로 더 높다.

여기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선물 연계 프로그램 매매 등 기계적 거래가 늘어나면서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도 널뛰기했다. 3월 26.4원(오전장 마감 기준) 뛰더니 전날 야간 거래 때는 장중 1500원을 넘어섰다. 이날은 방향을 틀어 1468.1원(오후 3시 30분)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연료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에게 금은 지난 4일 132조682억원에 이른다. 신용거래용자액은 33조1978억원에 달한다.

한편 널뛰는 증시에 공포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73.70를 기록했다. 지수가 상승하자 6.66% 하락했다. 지난 4일엔 80.43까지 치솟기도 했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력·전선업체, 직원 재택근무·물류 경로 확보 등 리스크 대응

업계 "단기 사업 차질 가능성 제한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가 현지 사업 상황 점검과 안전 관리에 나섰다. 현지 인력 안전 확보와 함께 물류 및 장비 운송 등 사업 영향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 송전망과 변전 설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동은 전력 수요 증가와 산업·

도시 개발 확대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지역으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요 해외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 등 대형 전력 설비는 중량이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달해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해상 운송을 통해 현지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장비 운송 일정이나 납품 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현지 인력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중동 지역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

를 권고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중공업 역시 중동 지역 근무자에 대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선 업체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선은 중동 지역 주재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동 전력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단기적인 사업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용 상승 등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력기기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은 없지만 중동 지역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물류 경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해 전력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산업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하루 걸러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살 떨리는 코스피”

유동성 장세의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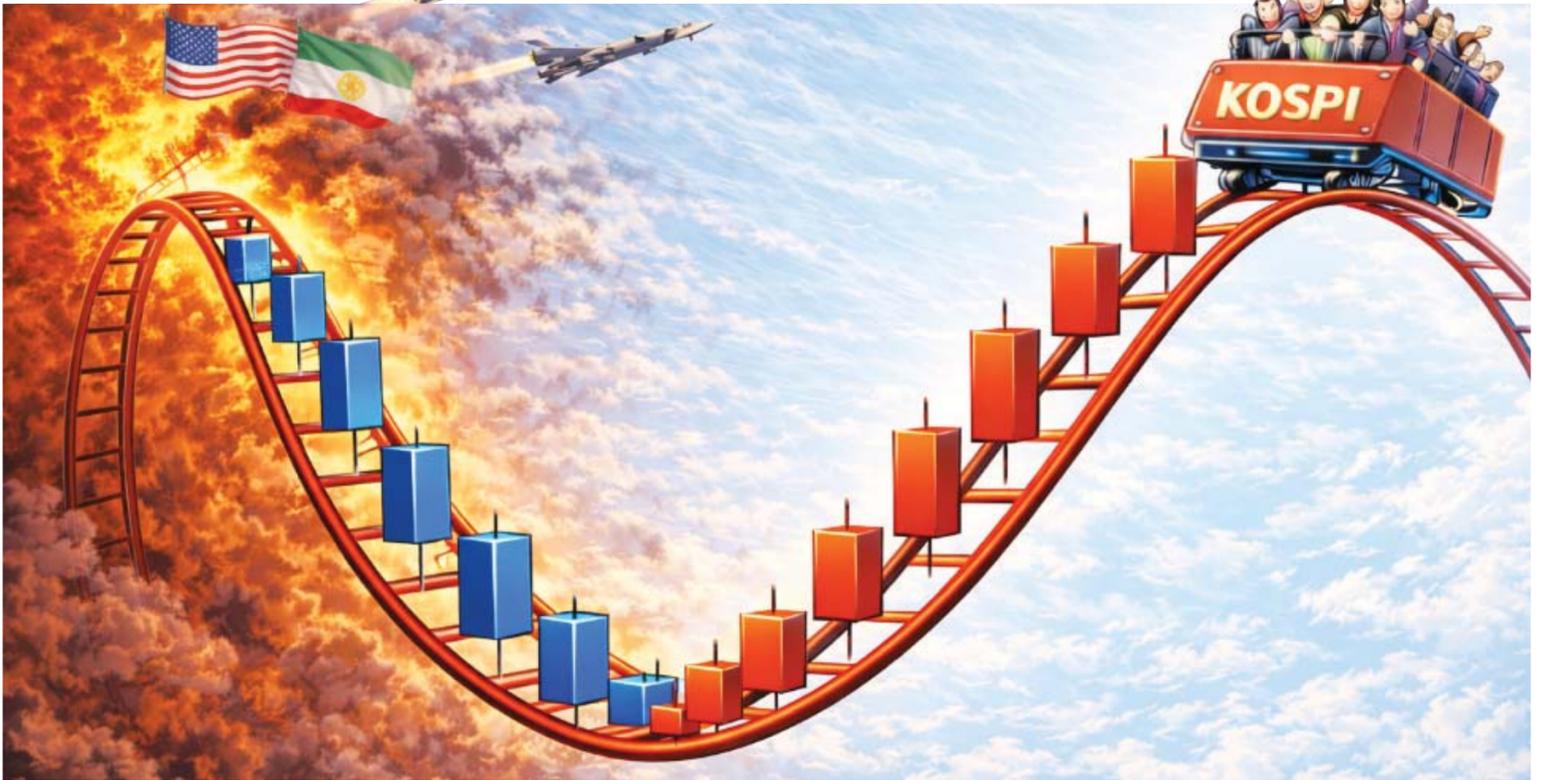
6180.45와 5059.45 사이.

3~5일 코스피 지수가 그린 궤적이다. 1121포인트를 오르내리며 투자자에게 살 떨리는 사흘을 선사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두 번의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 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기간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조치도 실행됐다. 국내 증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1년 7개월 만이다. 5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 상황은 비이성적 과열(단타 매매)과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경제 및 증시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욕과 반도체 편중이 만든 변동성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을 지배한 건 '비이성적 과열'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과도한 주가 급등세에 대한 경고를 던지며 썼던 말이다. 시장을 달군 건 무서운 기세로 증시로 달려드는 개인투자자의 러브콜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코스피 개인투자자 비중(거래량 기준)



Chat GPT로 생성한 '미국-이란 군사 충돌 여파 속 국내 자본시장 흐름을 롤러코스터 형태로 묘사한 그림'으로, 최근 증시의 높은 시장 변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준)이 올해 기준 53.8%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한몫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유입돼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점과 대비된다. 한국은 빚을 내 투자한 경우도 많다.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용자는 이달 4일 기준 33조197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7조2865억원에서 불과 두달여 만에 5조9113억원이 늘었다. 증시가 급락할 경우 자동으로 매도(반대 매매)되는 구조여서, 외부 충격에 증시가 과민 반응할 수 있다.

반도체에 편중된 시장 구조도 문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코스피 시가총액 40%가 쏠려있다. 연초 이후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80%와 62% 올랐다. 이로 인해 두 기업의 코스피 전체 지수 상승의 기여도가 50%에 달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두 종목은 나란히 급등락을 보였다. 외국인이 대규모

로 매도했고, 개인이 묻지마 매수한 영향이다.

외국인은 2월 27일과 3~4일 사흘 동안 삼성전자 약 3900만주, SK하이닉스 약 410만주를 순매도했다.

개인 거래비중 높아 단타 쏠림 심화 신용융자 급증, 반대매매 리스크 확대 외사매도·개인매수 충돌 지수 급등락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약 7조원, SK하이닉스 약 4조원 등 두 종목에서만 10조원 안팎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은 2월 27일과 3~4일 등 최근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약 3900만주, SK하이닉스 약 410만주를 순매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약 7조원, SK하이닉스 약 4조원 등 두 종목에서만 10조원 안팎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순매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 허약한 체질도 문제

TSMC가 독주하는 대만 증시의 일간 변동성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열과 편중으로 설명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에서는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답을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매일 염려가 없겠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에 의존해 오른 증시는 급리 상승국면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실업률도 두 달 연속 4%로 나타나는 등 실물경기와 증시의 온도차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사 이클이 둔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불황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전망 때보다 악화한다.

이런 전쟁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안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삼전·하이닉스 지수 영향력 과도 전쟁·유가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 경기와 괴리... 외풍에 민감

유가(두바이유)는 전쟁 직전 배럴당 71.81달러 수준이었는데, 3일에는 8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질 우려가 크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026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꽃, 시간을 물들인다

4.24(목) ~ 5.10(일)

일산호수공원

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

최태원, 한 달여 만에 젠슨 황 만난다… HBM 공급 등 논의

16일 美 새너제이 GTC 현장 방문
엔비디아, 베라루민 공개 예상
적용될 HBM4 등 협력방안 점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달 미국서 '치맥 회동'을 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남을 예고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도 만남을 갖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GTC 2026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최 회장이 GTC 현장을 직접 찾은 것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

은 이번이 처음이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기술 콘퍼런스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공개할 것

로 예상된다. 베라 루빈에는 차세대 HBM인 HBM4가 적용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올해 베라 루빈 등에 사용할 HBM4 물량 중 약 3분의 2를 SK하이닉스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4에 대해 고객 요청 물

량을 양산하며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과 젠슨 황 CEO는 행사 기간 HBM 공급 확대와 차세대 AI 반도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HBM4를 넘어 차세대 HBM 기술 개발 협력이나 AI 인프라 분야 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또 SK그룹이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에도 속도를 높이는 만큼 양사의 협력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7조원을 투자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미국 방문 중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드는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경영진이 모인 'CEO 세미나'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며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중인 AI 메모리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스에 HBM4와 HBM3E 등 AI 메모리 실물과 이 제품들이 탑재된 엔비디아의 AI 시스템도 함께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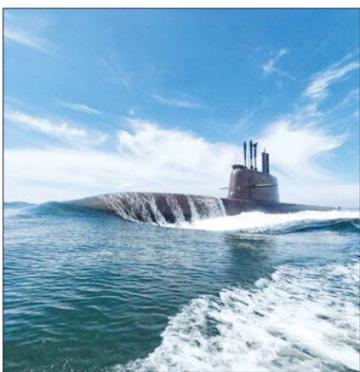
metro

캐나다 잠수함 '韓·獨 분할발주' 검토… 비효율성 우려 제기

60조 규모 12척, 각 6척씩 병행 방안
獨 대서양, 韓 태평양·인도태평양 배치
캐나다, 경제적 파급효과 확보 계산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총 12척을 한국과 독일에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분할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다만 공급망·정비(MRO)·훈련 체계 이중화로 비효율 이 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력 속에서 안보 전략과 무역 다변화의 균형을 모색하며 잠수함 사업을 독일(TKMS 212CD) 6척과 한국(한화오션 KSS-III 배치Ⅱ) 6척으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대로라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면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 한국 잠수함은 태평양·인도태평양 작전에 배치되는 방안이다.

실제 캐나다 내부에서 분할 발주 가능성은 거론돼 왔다. 지난해 9월 캐나다 통

신은 정부 고위층이 수개월간 잠수함 계약 분할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해 왔다는 업계 증언을 보도했다. 앵거스 톱시 캐나다 해군사령관도 과거 독일·노르웨이 212형 6척과 한국 KSS-III 6척을 병행 도입할 수 있다며, 군사적 회복력 측면의 이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할 발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복돼 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잠수함 계약을 두 공급업체에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일 합대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하고 동일 기종을 교대로 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분할 발주가 '운영 체계 이원화'로 이어져 장기 비용과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 잠

수함은 복잡한 체계인 만큼 두 기종의 공급망과 부품 재고를 병행하면 조달·정비 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져 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함대를 나누면 단일 모델의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낮아져 설계 요구 반영이나 공급망 참여 등에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고, 기종 이원화로 훈련 체계가 분리되면 전환 배치가 제한돼 중복·비효율과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분할 발주설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려는 캐나다의 전략적 계산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 측은 CPSP 제안에 에너지·철강·핵심광물·우주·자동차·AI·인프라 등 전략 분야 전반의 600억 달러 이상 무역·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자동차·배터리·핵심광물

협력 확대 공동 의향서를 체결하며 산업 투자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가 분할 발주를 공식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 아래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업계에서는 분할 발주설이 양국의 투자 조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캐나다 입장에선 독일과 한국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 분할 발주가 이상적인 카드일 수 있다"며 "분할 발주가 가능하려면 CPSP 입찰 공고문에 복수 낙찰 허용 여부와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안서가 제출된 뒤 조건을 변경하려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 입찰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력과 참여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분할 발주 여지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통신3사, 속도 대신 'AI 생태계' 경쟁

MWC26 결산

SKT, AI 네이트 혁신 전략 발표
KT, 6G 지능형 네트워크 청사진
LG U+, '익시오' 소통 혁신 선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흐름은 통신 산업의 정체성이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 통신 3사는 MWC26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지능형 네트워크,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앞세운 전략을 공개하며 통신사의 미래 경쟁 무대가 더 이상 속도 경쟁이 아닌 AI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해보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능형 시대(The IQ Era)'를 주제로 삼아 AI 인프라, 커넥티드 AI, 기업을 위한 AI 등 6가지 테마를 통해 급변하는 IT 산업의 현주소를 짚었다.

우리나라는 통신 3사를 비롯해 삼성 전자, SK하이닉스 등 182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첨단 기술을 세계에 선보였다. 특히 올해 통신3사는 MWC 현장에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포하며 미래 AI 주도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체질을 AI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AI 네이티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재현 CEO는 이동통신사가 사업 산업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기존 전산 시스템을 AI 최적화 설계로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를 구

축해 아시아 최대 허브로 도약하고, 모든 임직원이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활용하는 1인 1 AI 제도를 통해 조직 문화부터 서비스까지 AI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KT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회 전반이 신뢰할 수 있는 6G 지능형 네트워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3차원 커버리지를 구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는 연결성을 제공하고, 양자 암호 기반의 보안 기술을 전 구간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오퍼레이터 중심의 자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부터 관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데이터 전체가 아닌 목적에 맞는 핵심 정보만 선별해 전달하는 의미 중심 통신 방식으로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사람을 잇는 음성 통화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며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통한 소통 혁신을 선언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금융범죄 대응”

금감원 '민생금융 금융감독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예방 체계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을 공개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불법 주식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제 금융범죄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적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강력한 단속의지를 현장의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민생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 직접 수사 체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불법대부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거래정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AI 기반 탐지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활용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공유해 사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를 탐지하는 AI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해 불법 리딩방과 투자 사기 광고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새 계좌 개설 없이 쓰던 계좌로

고민 끝

입출금 월별 리포트로

부담 끝



한눈에 보는 정기회비 현황으로

정신 끝



KB스타뱅킹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임 끝



끝내주는 모임 관리

KB모임통장 서비스

정기회비 현황 조회
모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꼭꼭 찌르기
잊고 있던 회비도 센스 있게 알림

모임 캘린더
간편하게 등록하고 공유하는 모임 일정

월별 리포트
그래프로 읽는 우리 모임 한 달 결산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KB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340-1호(2026.01.26), 유효기간 2026.01.26~2026.12.31까지

KB 국민은행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리법 속도… 행정통합법은 제자리

3월 임시국회 개막

한미투자전략공사 설립 등 합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입장 정리 안된 국회, 충남대전 반대

여야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처리가 무난해보이지만, 행정통합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상태이며, 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남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내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부터 해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특별법 선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위헌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부 정리가 안 된 건 두 지역이 똑같은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지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외국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

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해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경력자’라는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이 대통령, 시장안정 100조 투입·유류 매입가 공개 검토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자금 가동 중동 교민 안전 위해 우방국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유가 안정,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 발생 시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정

부가)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시차 없이’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전일 대비 44.50원 올라 1800원을 돌파했다.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 지선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공천

“성공적으로 도정 이끈 경험”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앞서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한 바 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장은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이해와 지역발전 DNA를 갖춘 사람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시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태대 민주당 대 표는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김경수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며 축하했다. 정 대표는 “(단수공천) 1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2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어 경남지사 후보로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 짓고 출전한다”며 “모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필승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시했던 선각자이자 지도자”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이 제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정태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회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기준금리 멈췄는데 예대차 되레 확대... 차주부담 커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1.5%p
“정부규제 대출 적극확대 어려워
자금 조달할 필요성 크지 않아”

대출금리 기준 채권금리 오르고
원화대출 연체율 10년래 최대치
은행, 가산금리로 대출증가 조절

기준금리는 9개월째 연 2.50%에 머물러 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대출금리는 6%대를 넘어선 반면 예금금리는 2%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46%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17%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의 반등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평균 1.504%p로 전월 대비 0.242%p 올라 최근 1년 중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2.50%에 머무르면서 예금금리는 하락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해 1월 4.270%를 기록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2.904%에서 2.766%로 0.138%p 떨어졌다.

통상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려 대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2조4132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증시 투자자예탁금은 약 20조원 증가했다.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은행권의 금리 대

응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대출 수요 역시 제한적”이라며 “굳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00~3.20%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준금리와 격차는 0.50~0.70%p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전성 부담 역시 변수다.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로 10년 만에 다시 0.5%대에 진입했다.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신용프리미엄을 반영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흐름은 기준금리보다는 규제 환경과 자금 수요 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가계 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워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그룹 서클·크립토닷컴과 외국인 국내결제 협업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선도를 위해 선제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카드는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CRCL) 계열사 및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자 크립토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국내 결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나카드는 USDC를 보유하거나 충전 이력이 있는 크립토닷컴 비자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손님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크로노스(Cronos)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인 CRO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해 12월 서클(Circle)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USDC 결제·매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결제 인프라와의 접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또 성장 지속 불확실... 정책방향 전환·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재조정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가 세계 성장의 60%를 견인해온 성장엔진이지만, 과거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과 선진국 산업정책의 복귀, AI·자동화 확산이 겹치면서 아시아의 ‘순풍’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식 전환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태국중앙은행 ‘Asia in 2050’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성장 기여도를 먼저 짚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었다. 그는 아시아의 글로벌 성장 기여율이 1970년대 약 20%에서 최근 60%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기여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10년대 중반 35%까지 올라갔다가 지정학 갈등, 고령화, 부동산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낮아져 올해 2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탈세계화라기보다 재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고 “교역이 급감하기보다 공급망이 경제논리에서 지정학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변화의 충격도 강조했다.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제조업이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평균 13% 수준에서 정체되는 ‘조기 탈산업화’가 진행 중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금융·법률·바이오 R&D 등 고부가 서비스는 선진국의 네트워크 효과가 커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정책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승자 고르기’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 기관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온렌딩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 같은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대응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거시경제·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강남3구·용산구 집값 2주 연속 하락세

강서구·양천구·중구 등 오름세
경기 0.07%·인천 0.02% 상승

서울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일 기준 0.09% 상승했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5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나타나며 조정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고, 재건축 추진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하는 등 국지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09% 하락해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용산구 역시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내려 낙폭이 확대됐다.

반면 강서구는 0.23% 올라 서울 지역 내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양천구와 중구, 중랑구, 도봉구 등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7%, 0.02% 상승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2%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2933명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3.9대 1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아파트 1순위 청약(749가구 모집)에 총 2933건이 접수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3.9대 1로 나타났다.

전용 38㎡는 12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5건이 접수돼 1.25 경쟁률로 마감했고, 중형 평형인 77㎡, 84㎡ 타입도 각각 2대 1, 2.59대 1의 경쟁률로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됐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외지인이 청

약 흥행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기타지역 접수 비중이 높았지만 구리 지역 수요자의 참여도 예상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전용 77㎡와 84㎡ 타입은 역과 가까운 단지에 배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역과 거리가 있는 비역세권 단지에 당첨될 위험이 있다. 대단지인 만큼 역세권 단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평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일부 타입은 미달로 인해 2순위로 넘어갔다. 전용 29㎡, 44㎡, 59㎡A·B·C, 110㎡ 타입은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순위 접수는 5일 진행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軍 간부 금융패키지 대출·적금 2개 구성

신한은행은 군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군 간부 특화 금융패키지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복무 군 간부의 목돈 마련을 돕는 ‘신한 장기복무 도약적금’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군 전용 신용대출의 금리를 3월 중 약 0.4%포인트(p) 인하해 직업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한 대출 대상은 지난해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 관련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지난 3일 ‘신한 장기복무 도약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군인공제회 및 신한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복무 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복무를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월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3년 만기 적금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5.5%에 우대이자율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5.7%다.

우대금리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20개월 이상 정기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이 20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1%p가 적용된다. /나유리 기자

SK이노, 美 SMR 건설 수혜 글로벌 원전사업 힘 받는다

테라파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수 SK그룹, 대규모 투자 등 지속 협력 SMR 기반 전력 생태계 구축 계획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SMR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 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 건설이 승인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승인으로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 승인은 테라파워가 보유한 차세대 SMR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

정받았다는 의미로, 향후 상업화 일정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으로 액체 나트륨 냉각 기술을 적용한 SMR을 개발하고 있다. 끓는점이 약 880도에 달하는 액체 나트륨 냉각재는 열 흡수 능력이 뛰어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대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테라파워의 SMR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8월 공동으로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SMR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해 SMR

기반 전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SMR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 환영사에서 "SK는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구축하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MR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최 회장이 서울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나 SMR 등 에너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바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기아 AVP본부 박민우 사장(맨앞 가운데)이 타운홀 미팅에서 구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박민우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선도기업 혁신"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타운홀 미팅… 비전·전략 제시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박민우 사장이 5일 AVP본부 연구 거점인 판교 테크원에서 AVP본부 임직원 150여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앞으로 다같이 이뤄낼 혁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비전 & 디렉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박민우 사장이 신임 AVP본부장으로서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박민우 사장은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은 확장 가능한 하드웨어와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이룰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

조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결합하기 위한 조직의 비전을 공유했다.

AVP본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양산 차량에 오차 없이 적용하는 '실행(Execution)'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히 ▲ 전문성 ▲ 집요함 ▲ 민첩한 실행을 핵심 실천 과제로 꼽았다.

이날 박민우 사장은 '원팀(One Team)'으로서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충돌과 이견이 발생하겠지만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충돌은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갈등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며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는 차세대 지능형 모빌리티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사운드 스위트, 극장 수준 입체음향 제공"

LG전자 신제품 설명회

콘텐츠·공간에 맞춰 음향 자동조정 "새로운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 제공"

최근 글로벌 컨슈머 오디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형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을 공개하고 음향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극장과 같은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출시에 맞춰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LG 사운드 스위트의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했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국내 최초 돌비 레버터리사의 첨단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커넥트'가 탑재됐다. 해당 기술은 스피커를 자유롭게 배



(오른쪽부터) LG전자 박찬후 오디오개발실장, 돌비 이태지역 마케팅총괄 아심 마서 부사장이 5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LG 사운드 스위트' 설명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LG전자

치해도 시스템이 스피커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공간에 맞춘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집에서 음향을 구현할 경우 지정된 위치에 배치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사운드바는 AI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조절한다. 2026년형 LG 올레드 TV와 동일한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AI가 음성·음악·

효과음을 구분해 각각의 소리를 또렷하게 분리하고 콘텐츠에 맞춰 음향을 자동 조정한다. 최첨단 AI 프로세서는 NPU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오디오 신호 처리 기능 'AI 사운드 프로 플러스'(AI SoundPro+)를 구현한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운드바(H7), 서라운드 스피커(M5·M7), 서브우퍼(W7) 등으로 구성되며 취향에 맞춰 조합을 달리할 수 있다.

사운드바 중심 28개 조합, 사운드바 없이 LG TV 중심 22개 조합이 가능해 총 50가지 구성을 지원한다.

박찬후 LG전자 오디오개발실장은 "프리미엄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사운드바만으로는 공간 음향 경험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웠다"며 "TV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LG 사운드 스위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시스템, 국방반도체 기술 국산화 속도

서울대·성균관대 R&D 센터 설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 주요 대학과 협력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서울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와 각각 국방·우주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연구센터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정보통신대학 내에 조성된다.

한화시스템과 서울대는 오는 2031년까지 통신용 고주파수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해당 반도체는 통신위성, 이동형 단말기, 무인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소자로 미래 전장에서 육·해·공·우주영역을 연결하는 초고속·저지연·고성능 군 통신 구현

성균관대학교와는 레이더용 고출력·고효율·광대역 국산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해당 반도체는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와 전투기, 관측위성 등에 적용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핵심 소자로 전파 생성과 수신 신호 증폭을 통해 표적 탐색 및 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천공-II와 L-SAM에 적용되는 다기능레이더(MFR)를 비롯해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관측위성의 SAR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각 대학과 공동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선형 연구부터 기술 확보, 부품 제품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 인적 교류 확대와 우수 인력 채용 등 중장기 협력도 함께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LG엔솔, 황 활용 고용량 배터리 구현

고체 전해질 적용… 안정적 성능 확인

LG에너지솔루션이 양극 소재로 '황(Sulfur)'을 활용한 고용량 배터리를 전고체 기술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며 차세대 고용량 배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시카고대학교 셸리 멩(Shirley Meng) 교수 연구팀과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은 황을 배터리 양극 소재로 적용해 높은 에너지 저장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 구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폴리설퍼이드 용출이 발생하는 환경을 차단했고 약 1500mAh/g 수준의 용량과 안정적인 수명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당 성능은 코인셀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파우치 형태의 셀에서도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배터리 적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신설

베트남 북부 위치… 3570억 투자

장이 가능한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며 추가수주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이 해외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약 357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북부 산업도시 타이응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부터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약 5만5000톤까지 확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경북 포항에서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조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을 양산해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점검부터 새 과제 발굴까지’... 민관 정책협의회 본격 출범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중소벤처소상공인 자문기구 가동
한성숙·이광재 공동위원장 맡아
위원 72명 위촉... 4개 분과 구성
韓 “현장목소리 반영, 관계부처 협력”
李 “피터팬 극복 등 5대 과제 논의”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2027년 새 정책을 발굴하는 최상위 자문기구인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벤처캐피탈(VC), 협회 및 단체 등 총 7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중기부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내부적으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정체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외부적으로는 중동 정세 악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변화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 맡았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민관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4개 분과로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장은 조원표 메세이상대표(중소기업),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창업·벤처), 이병선 제주장조경제혁신센터 대표(소상공인), 홍정원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상생·공정)가 각각 맡았다.

이들 위원장 외에 박혜린 오픈시스템 대표,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아 CJ올리브영 상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상 중소기업 분과), 이세영 류트테크놀로지 대표,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대표, 이동훈 한국코스닥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창업·벤처 분과), 김현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박영상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상생그룹 본부장, 전화성 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

장, 신희운 무신사 제휴사업실장(“ 소상공인 분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 연구소장,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박희경 재단 경정 변호사(“ 상생·공정 분과) 등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민관 정책협의회는 이미 발표한 중기부의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4개 분과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에 대해 매달 1회 이상 심층 논의와 토론을 거쳐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 회의에 주요 논의 결과를 상정한다. 민관 정책협의회 성과는 올해 연말께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중

소·벤처 생태계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5대 과제를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고속 성장 기업, 성장 정체 기업 등 성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할당제, 지원율 상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신청서류 50% 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 혁신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리바트

호텔·레지던스 상업공간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3년내 매출 2000억대 규모 확대목표

현대리바트가 호텔, 레지던스 등 프리미엄 상업공간의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000억원대 수준인 관련 사업 매출을 3년내 2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B2B 사업 영역을 신축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시공하는 빌트인 사업 위주에서 호텔·리조트와 하이엔드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한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하며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 예정인 호텔 ‘트레블로지역삼’의 사업 시행사인 블루코브자산운용과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AI 실무역량 강화” 스마트 경영 속도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리더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서며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진기업은 최근 임원 및 본사 팀장을 대상으로 ‘AI Intensive’ 과정을 개설하고 AI 실무 활용 능력 키우기에 나섰다. /김승호 기자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하며 경영 일선에 있는 리더들이 AI를 전략적 도구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승호 기자

LIG넥스원

“국산화율 90% 목표”

구미에 함대공유도탄-II 시설 준공

LIG넥스원은 4일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하우스에서 함대공유도탄-II 유도탄 조립·점검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대공유도탄-II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순항유도탄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함대공 방어 유도 무기 개발 사업이다.

이번 준공식은 LIG넥스원이 지난 2024년 방위사업청과 함대공유도탄-I I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이번 사업은 업계 최초의 업체 주관 대공방어 유도 무기 체계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열폭주 막아라”... 배터리 안전소재 경쟁 본격화

배터리 소재 기업, ‘인터배터리’ 참가
LG화학 접착 등 안전 통합솔루션 선배
에코프로 LFP·전고체 소재 로드맵 공개
엘앤에프 울트라 하이니켈 경쟁력 제시

LG화학,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차세대 소재와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안전 소재부터 하이니켈 양극재, LFP까지 다양한 배터리 소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

리 열폭주를 지연·차단하는 통합 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열폭주 지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B(Super Flame Barrier)’는 화염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단단하고 치밀한 장벽 구조로 변해 화염과 압력 전이를 동시에 늦추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해 배터리 팩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젤(Aerogel) 기반 열차단 소재 ‘넥솔라’도 함께 전시한다. 에어로젤은 우수한 열 차단 특성을 지닌 소재로 셀 간은 물론 모듈 사이, 배터리 팩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확산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를 통해 열폭주 지연 소재

와 에어로젤을 결합한 이중 안전 체계를 구현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중심의 삼원계 양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기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등 로봇 시대를 겨냥한 배터리 소재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성과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사업과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지난 4년간 약 80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제련 사업에 진출하며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헝가리 양극재 공장은 유럽 역내 규

제 대응을 위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한다.

제품 라인업도 확대한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비롯해 미드니켈 양극재, 나트륨이온배터리(SIB) 양극재, 리튬망간 리치(LMR) 양극재 등 고객 맞춤형 소재를 공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대응을 위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소재도 선보인다.

엘앤에프는 LFP 양극재 신제품과 하이니켈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공개한다. 세계 최초 울트라 하이니켈 95% 양산 성과와 국내 최초 LFP 양극재 양산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과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인태연 “골목형상점가 지역명소 거듭 밀착 지원”

(소진공 이사장)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서 애로 청취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신설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 모델 육성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신설해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 모델로 성장을 돕는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지난 4일 1913 송정역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골목형상

점가 등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을 살피고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관계자,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대표들과 ‘광주 지역 골목상권 희망 ON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행보는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체감 변화,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 상권별 특화 전략과 함께 디지털 전환·마케팅·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는 골목형상점가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643곳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정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579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는 자치구별 현장 조사와 상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에서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간담회 등 밀착 행정을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정책 지원의 범위를 전통시장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골목상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MWC26

“‘익시오’ 보이스 AI 차별화 글로벌 SW기업으로 전환”

홍범식 LG U+ 사장, 통신·AX 주도 비전
감정·맥락 파악 ‘익시오 프로’ 고도화
B2B 영역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 구축



홍 사장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통신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음성”이라며 만약 이 데이터를 직접 SW화하지 않고 빅테크에 넘긴다면 과거처럼 시장을 잠식당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B2B 영역에서는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을 구축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DC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을 확대하고, LG AI연구원의 ‘엑스원’ 기반 통신 특화 AI와 보안을 강화한 ‘소버린 AI’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의 진출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 사장은 “올해 안으로 1~2개 글로벌 사업자에게 익시오를 판매하겠다”며 현재 8개 글로벌 통신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AI 시대는 통신사에 새로운 해외 진출 판로를 열어준 셈”이라며 “천문학적 투자가 요구되더라도 차별화된 수익창출원을 만들기 위해 AI 인프라와 SW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경쟁 핵심 축 ‘인프라’ “SK그룹 AIDC 가장 최적화”

정석근 SKT CTO, AI 일상 침투로
인프라 부담 커져… ‘효율·비용’ 중요
‘네오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직접 제공



의 변화가 최근 3년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SKT는 SK그룹의 수직 계열화된 역량을 최대 무기로 내세운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터 SK에코플랜트의 에너지 설비, SK브로드밴드의 인프라 운영까지 묶어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CTO는 “SK그룹 자체가 AIDC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를 가졌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SK텔레콤(SKT)이 인공지능(AI) 경쟁의 핵심 축을 거대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로 완전히 옮겨 잡았다.

정석근 SKT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6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LLM 성능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이제는 하드웨어와 데이터센터(DC)의 근본적인 변화를 묶어 대응하는 인프라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 CTO가 인프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효율과 비용 때문이다. 최근 코딩 에이전트처럼 AI 활용이 실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내부 처리 과정과 인프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2~3년간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정 CTO는 “엔비디아에 대응하는 칩들이 본격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그릇인 데이터센터도 공랭식에서 수랭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난 20년

데이터센터 사업 모델 역시 단순한 ‘부동산 임대’를 넘어 컴퓨팅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SKT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임대와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적절히 섞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그는 “10MW 규모의 AIDC를 짓는다고 하면 건물 짓고 전기 설비를 넣는데 대략 1500억~2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B200 GPU를 사서 넣으면 그게 대략 8000억원 가량 정도다. 컴퓨팅까지 다 넣으면 대략 1조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 중에 20% 정도가 건물값, 80%가 서버값이 된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KT,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 첫 대표 의장사

13개 의장사, 20여개 기업·기관 참여

KT가 한국형 AI 네트워크 협력체 ‘AINA(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의 첫 대표 의장사로 활동한다고 5일 밝혔다. AINA는 AI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국내 산·학·연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출범식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 ‘MWC26’ 기간 중 KT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과 KT 네트워크부문장 서창석 부사장, 최진성 AI-RAN 얼라이언스

의장 등이 참석해 협력체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KT는 AI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INA의 첫 대표 의장사를 맡게 됐다. 협력체는 국내 통신 3사를 포함한 13개 의장사와 2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AI 네트워크 관련 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AINA는 향후 공동 연구 과제 발굴과 협력 논의 체계 구축,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네트워크 기술과 표준 논의를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KT, 2030년까지 스타트업 500곳 육성

AI·ESG 분야 스타트업 15곳 전시관 운영
정재현 SKT CEO, 스타트업 대표 만나 논의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일(현지시간) 전시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런치 미팅을 갖고 기술과 사업 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진출과 대기업 협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K텔레콤은 MWC26 부대행사인 ‘4YFN(4 Years From Now)’에 ‘SKT 스타트업 전시관’을 마련하고 AI와 ESG 분야 스타트업 15곳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정 CEO는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을 언급하며 “SKT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적극 화답하는 차원에서 스타트업의 ‘AI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CEO는 “SKT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년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 500곳의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협업 플랫폼 ‘스케치(SKETCH)’을 비롯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케치 포 굿’과 ‘스케치 위드 AI’ 등을 통해 약 8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CNS, GPU 576장 수용 ‘AI 박스’ 공개

컨테이너 기반 소형 데이터센터

LG CNS가 컨테이너 기반의 소형 데이터센터 ‘AI 박스’를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AI 박스는 컨테이너 하나에 최대 576장의 GPU를 수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데이터센터다. 별도의 건물 건설 없이 구축할 수 있어 설치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2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AI 박스는 약 6개월 내 구축이 가능하다.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확장성도 높였다. 단일 컨테이너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결합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에 따라 인프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AI 박스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통합 구성돼 있다. AI 플랫폼과 전력·냉각 설비, IT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것이



LG CNS AI 박스 투시도. /LG CNS

특징이다. LG전자의 냉각수 분배 장치(CDU)와 향온합습기, 냉동기, LG에너지솔루션의 UPS용 배터리 등 전력·냉각 장비가 함께 적용됐다.

시설은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기실과 서버·GPU가 운영되는 전산실로 구성된다. 외부에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열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AI 박스 1개 기준 서버 전력 규모는 약 1.2MW다.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는 생생형 AI 확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서현 기자

LG U+, GLOMO서 ‘CTO 초이스’ 등 3개부문 수상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AI 기반 보안 기술 역량 입증

LG유플러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 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6’에서 ‘CTO 초이스’를 포함해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GLOMO 어워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동통신 업계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기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에 수여되는 ‘CTO 초이스’를 수상했다. 해당 상은 전 세계 통신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다.

이번 수상에는 AI 기반 보안 기술이 주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에 온디바이스 기반 음성 변조 탐지 기능인 ‘안티딥보이스’를 적용해 변조된 음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양자내성암호 기술 등을 통해 보안 기능을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오른쪽)이 손 콜린스 GLOMO 심사위원장으로부터 CTO 초이스를 수상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강화했다.

또한 AI 보안 기술을 통합한 ‘익시 가디언’은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및 사기 방지’ 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네트워크 보안과 사기 대응 기술을 평가해 수여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마케팅 엑셀런스’ 부문에서 ‘마케팅 포 굿’ 상도 받았다. 이 부문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김서현 기자

기업성장펀드 17일 코스닥 입성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매매 가능

비상장 벤처 등에 60% 투자 의무 설정·설립 후 90일내 코스닥 상장 최소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금융위, 내달까지 시스템 정비 완료

(BDC의 운용대상) /금융위원회

주 투자대상 기업 60% 이상	안전자산 10% 이상	재량 30% 미만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기업성장펀드’(BDC)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코스닥 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약 20년 만으로,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거래하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혁신기업과 벤처조합 지분,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나 예·적금 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30% 범위 내에서 공모펀드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BDC는 최소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 규모는 300억원이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모집 금액에 따라 최대 5% 수준의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마다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분기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BDC는 설정 또는 설립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 전 공모에 참여하거나 상장 이후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기존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종합

자산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캐피탈(VC)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오는 4월까지 완료한 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BDC 상품 출시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혁신기업 성장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했다”며 “향후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전쟁 리스크에 투심 출렁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코스피 향방 어디로

국내 증시 급등락 반복에 개미 불안 전쟁 장기화되면 추가 하락 위험 일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



ChatGPT로 생성한 힘들어하는 투자자 모습.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코스피의 ‘코’자만 들어도 불안하다. 이란 전쟁으로 투자 성적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수차례에 걸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주와 코스닥 주식에 3500만원가량 투자했다. 최씨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 모으고 있는데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 내가 사면 다음날 떨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동 불안에 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 향방이 중동 리스크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조기에 마무리되면 빨리 안정을 되찾겠지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다. 다만, 지난 4일과 같은 폭락 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스피 1차 반등 목표는 5800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1차 반등 목표치는 전일 갭 하락을 했던 5800포인트가 될 듯하며 이후 직전 고점 회복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투자심리 회복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급락으로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 위기에 처할 뻔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반등이 긴급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의 불확실성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월가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부상 중인 사모신용 부실화는 지속해서 팔로우(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 급락을 초래했던 지정학적 사건은 걸프전(1990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현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걸프전은 코스피 저점까지 2개월 반이 걸렸고 누적 하락률은 약 15%였다. 러-우 사태로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7개월이 소요됐고 누적 하락률은

약 20%였다”면서 “이번 중동 사태가 시작된 후 2거래일 만에 -18%를 기록했다는 건 전쟁 리스크를 일시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연구원은 추가 급락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전일 증가 기준 8.1배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는데, 이런 수준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에서만 봤던 것이라면서 “현재는 팔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야 할 자리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현 시장의 극단적 과민반응을 2026년 코스피 7000포인트선 도약을 위한 시장 재진입 및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급락이 벌어지기 이전 수준의 상승 모멘텀이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와 이익 전망은 대체로 동행하지만 변곡점은 이익 전망보다 주가가 더 빨랐다”면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작년 9월 이후 시작된 이례적 이익 전망 상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EPS)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이익 전망은 과거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대 평균 30% 하향 조정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가 20%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적정 코스피 지수는 5070포인트로 계산되며 ±500포인트로 상·하단을 적용하면 하단은 4500포인트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기업 영업실적 개선... 업종 격차는 뚜렷”

S&P, 한국기업 보고서 “삼전·하닉 사상 최대실적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일 한국 기업의 전체 영업 실적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산업별 실적 격차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 업종별 격차 확대, 저점은 통과’ 제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추이는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

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주도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기업 전체 실적과 수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중동 분쟁이 추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전략적·상업적 원유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이나 지속적 가격 상승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S&P는 “관세 비용, 투자 부담, 전기차(EV) 관련 정책 변화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크게 노출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정책적 가시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상태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금융상품 전 과정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사전예방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홍콩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가입 전 위험 고지와 가입 이후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라이빗뱅크(PB)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금융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양방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검사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본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함께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밸류업 컨설팅 대상·범위 확대

자산총액 2조 미만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동으로 일대일 맞춤형 밸류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 지원을 위해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밸류업 컨설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2조원 미만까지 대폭 늘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착을 위해 고배당 기업과 기술특례 신규상장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범위도 공시 연계 강화를 위해 재무지표 분석 중심의 1차 컨설팅에서 기업이 직접 작성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초안을 검토해 주는 2차 컨설팅을 도입한다. 컨설팅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상장기업의 신청을 거쳐 컨설팅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진단, 현장방문,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격화

산업부 “글로벌 3대 강국 도전”

연구개발·산업 현장 실증 지원 확대
MAX 얼라이언스 중심 생태계 강화
관계부처·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력

산업통상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개발과 실증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이로봇, 로보로스, 유일로보틱스, 테슬로, 하이젠RNM 등 기업과 서울대학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6년에는 4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상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



‘올해의 로봇(Best Robot)’으로 선정된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모습 /현대차그룹

시뮬레이션 플랫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니트리 등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양산형 휴머노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업 간 공동개발과 기술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2026년 CES 2026에서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의 작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 AI 모델 개발 기업, 부품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휴머노이드 학습용 데이터 확보·활용 ▲액추에이

터·로봇핸드 등 핵심부품 기술 내재화 ▲산업 현장 실증 확대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정책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R&D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수라학교’서 한식인재 육성

하반기 민관 협력형 학교 운영
해외인재 유치 설명회 개최

정부가 한식 및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오르는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한식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 안건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 설립이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해 한식 기초와 조리기술, 외식 경영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재외공관과 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한편 미국, 이탈리아 등지의 해외 요리학교에서도 한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는 정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하고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비자 제도도 관계 부처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2025 한식 컨퍼런스 워크숍’ /뉴시스

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어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고급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 프리미엄 수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 프랑스 앙스티튜 라이프 등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해외 요리학교 사례를 참고해 한식 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게임 종료 은폐 ‘웹젠’ 제재

종료 후 신규 아이템 출시·판매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출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

반으로 제작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로, 웹젠은 한국 내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일본 Aiming사와 체결하고 2023년 10월26일부터 서비스해왔다. 일반 RPG와 달리 1~3주 간격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되면 확률형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

며, 7월 30일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와 관련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서비스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해당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 서비스 종료 계획은 8월 22일야 공지됐으며, 게임은 10월 17일 최종 종료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S&P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감 멤버’ 선정

한전, 글로벌 ESG경영 인정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전력 생산·수요 분산 등 추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지속가능성 연감 멤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CSA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약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 중 848개 기업만이 지속가능성 연감에 등재됐다.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Enel, Iberdrola, Acciona 등 26개 글로벌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전은 2020년 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ESG 경영 현안과 전략을 심의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및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전력 생산·수요 분산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동철 사장의 안전 중심 경영 기조 아래 2025년 ‘중대재해 ZER0’를 기록했고,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40대 소득 늘었으나 삶 만족도 떨어졌다

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분석
건강·사회관계·정서 지표 ‘악화’

사회의 허리에 비유되는 40대의 자살률과 비만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사회단체 참여율과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 경제지표는 개선된 반면, 건강·사회관계·정서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명 이하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부터 반등 추세에 있다.

특히 40대(+4.7명)와 50대(+4.0명) 등 중장년층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률이 41.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건강 지표인 비만율도 악화했다. 2024년 비만율은 38.1%로 전년(37.2%)보다 0.9%포인트(p) 오르며 역

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0년(38.3%)에 근접했다.

이 중 40대는 비만율이 6.4%p 늘어난 연령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 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등 돌봄 하 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남자(35.7%)는 2년 전보다 0.5%p 증가한 반면 여자(30.5%)는 0.5%p 감소했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52.3%로 5.9%p 감소했다. 특히 40대(-8.9%p)와 30대(-8.3%p)에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는데,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우울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돈 삼겹·목살, 최대 50% 할인해요”

한돈자조금관리위, 한 달간 혜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농협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3월 한 달간 한돈 삼겹살과 목살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에서 이달 17일까지 기획전을 통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16개소한돈인증음식점·정육점에서는 22일까지



지난달 하순 서울 동아광장에서 열린 삼겹살 할인행사. /한돈자조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 인증점과 자세한 내용은 한돈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COME & 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뤼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뤼머광장과 박물관 지구를 잇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 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기업 협력 막는 규제 푼다... 교육부, 제도 개선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산학협력 규정, 기획재정부와 협의
교원 겸직·이중 소속 문제 등 손질
총장들, 대학 자율성 확대 목소리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연구소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에서 기업과 연구소가 캠퍼스에 들어와 협력하려 할 경우 그에 관련한 규제는 가능한 한 모두 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학이 기업과 연구소와 함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민현 인재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 현재 상황은 대학의 위기가 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과 기업·연구소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충남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이나 라이즈 체계 등을 통해 산학협력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로 전환하려면 교원 인사와 시설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외부 산업 전문가를

교육과 연구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 절차와 겸직 규정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교원 겸직과 이중 소속 문제를 포함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교수도 기업에서 활동하는 교차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중 소속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

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하는 이른바 ‘JA(겸임) 교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교육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내 기업·연구소 입주와 시설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최 차관은 “산업체와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와 협력하는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강조돼 왔지만 여러 제도적 걸림돌이 있었다”며 “시설 사용료 문제나 국유재산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연구 성과가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진 한양대 총장은 “연구 중심 대학이 혁신 기업 창출로 이어지려면 대학과 기업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교수가 대학과 기업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기

술 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대학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정책이 전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려면 임시 제도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숙 이화여대 총장은 AI 인재 양성 정책에서 여성 인재 확대 전략을 제안했고,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국립대 통합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지역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 대학 각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 제도를 도입해 지역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교실 위기상황 즉각 지원 ‘안심SEM’ 확대

서울시교육청, 규모 약 2.6배 늘려
“안정적 학급 운영 도와” 긍정 평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실에 전문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2026학년도에 전면 확대 운영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수업 방해, 교원 대상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긴급교실안심SEM’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사업 신설 이후 총 393건을 지원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이 98.6%에 달하는 등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담임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



2026 상반기 교육지원청 ‘긴급교실안심SEM’ 봉사자 역량 강화 연수 모습. /서울시교육청

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전문 인력 지원으로 수업과 학급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러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 1500만원에서 8억 3160만원으로 대폭 증

액하고, 지원 규모를 약 2.6배 확대한다.

2026학년도 ‘긴급교실안심SEM’은 전직 교원, 상담사 등 총 18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학교 기본 지원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주 15시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긴급성과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개통

지역 교통 여건 개선

고양시가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연결하는 ‘행주나루IC’ 전 구간을 6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과 행주산성 방면을 잇는 교통 연결이 완성되며 지역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일 현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서울방면과 행주산성방면을 모두 잇는 행주나루IC 전 구간 연결 완료로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

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지역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행주나루IC는 고양시 행주로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으로, 지난해 1월 2일 서울방면 진입로(640m·1차로)가 먼저 개통됐다. 이후 약 1년여 동안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이번에 행주산성방면 진출로(654m·1차로)까지 완공돼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축이 완성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계약 체결

시흥시, 공정 통합관리 체계 마련

시흥시는 4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의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체결된 총공사 계약으로, 총공사비는 4338억 원 규모다.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사업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마련됐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된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서남권, 미래 혁신 산업거점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추진
교통·산업·주거 균형발전 본격화
마곡·G밸리 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서부트럭터미널 등 유희부지 개발

산업 쇠퇴와 교통 낙후로 ‘서울의 손꼽히는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이 대규모 교통망 확충과 산업 재편을 통해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서울시는 교통·산업·주거·녹지전반을 동시에 혁신해 서남권을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된 1.0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총 7조 3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민간투자를 결합하고 사업 추진 속도와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동선·서부선 등 신규 철도망

먼저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철도 노선을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상승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한다.

개화동~신림동 15km 구간에는 남부순환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국회대로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구간에는 4.1km 지하차도를 설치한다. 강남~강서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한다.

◆마곡·운수산단, 산업 혁신플랫폼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 정비

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하고 ‘마곡형 R&D센터’ 4개소를 조성해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해 교차로·마리오킬드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수준인 30%까지 확대한다.

운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산업단지로 개발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검증·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 테크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관악 S밸리를 구축해 창업과 첨단 제조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7.3만호 공급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10만 4000㎡)는 ICT 기반 물류시설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운수역 역세권은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금융 중심지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남권 신속통합기획 84곳 가운데 36개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모아타운 37개소와 모아주택 1만 1996세대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7만 3000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서울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의 엔진”이라며 “교통 인프라와 산업, 주거 환경을 혁신해 도시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봄동 김치 맛 보세요”... 외식업계, 제철메뉴·상품 전면

제일제면소 미나리·바지락 신메뉴 본도시락 냉이 등 한식 한 상 제안 증가 ‘봄동겉절이’ 신제품 출시 배상면주가 ‘냉이술’ 한정판 선택

봄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를 앞세운 시즌 한정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며 식품·외식업계에 ‘제철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봄동을 활용한 김치 제품부터 미나리·바지락을 활용한 외식 메뉴, 냉이로 빚은 전통주까지 카테고리별 넘나드는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짧은 제철 수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계절성이 뚜렷한 원재료를 활용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선도를 높이고, 한정 판매 전략으로 구매 전환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특정 계절의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철 코어’ 트렌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제철 나물과 해산물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선보이며 봄 입맛 공략에 나섰다.



제일제면소의 미나리와 바지락 활용한 봄 시즌 메뉴. /CJ푸드빌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는 미나리와 바지락을 활용한 봄 시즌 메뉴 ‘바지락 비빔 칼국수’와 ‘바지락 무침’을 출시했다. 통통한 바지락과 향긋한 미나리를 특제 양념에 비벼 즐기는 ‘바지락 비빔 칼국수’는 담백한 감칠맛과 봄나물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산뜻한 풍미를 강조한 메뉴다. ‘바지락 무침’은 매콤새콤한 양념에 바지락과 미나리를 버무려 쌈 채소와 함께 즐기는 별미 메뉴로 구성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도 봄나물을 활용한 메뉴를 강화하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본도시락은 봄 제철 식재료인 냉이를 활용한 시즌 메뉴 4종을 출시했다.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쌈밥 한상’,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국반상’, ‘봄냉이무침 양념돼지구이 반상’, ‘봄냉이무침 제육덮밥’ 등으로 구성된 메뉴로, 향긋한 냉이무침과 양념돼지구이를 조합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한식 한 상을 제안했다. 브랜드 측은 제철



봄동겉절이. /대상

식재료와 건강 콘셉트를 결합해 계절의 정취를 식탁 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가정간편식(HMR)과 김치 제품에서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정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대상 증가는 봄동을 활용한 시즌 한정 김치 ‘봄동겉절이’를 출시했다. 겨울 동안 당분을 저장해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국내산 봄동을 활용한 제품으로 출시 약 두 달 만에 판매량이 2만 개를 넘어섰다. 중량 기준으로 는 약 22톤에 달한다.

최근 SNS에서는 봄동겉절이에 밥을 비벼 달걀프라이와 참기름을 더해 먹는 ‘봄동비빔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봄동비빔밥’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밥 메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류 업계에서도 제철 원료를 활용한 한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배상면주가 는 포천 참방이를 활용해 빚은 ‘냉이술’을 2026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발효해 짭짤한 냉이 향과 구수한 풍미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으로 봄철 채소 튀김이나 나물 요리와 잘 어울리는 계절 술로 기획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철 식재료는 신선도와 계절성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높은 편”이라며 “특히 ‘지금 아니면 맛보기 어렵다’는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시즌 한정 상품의 마케팅 효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학교급식 기름기 뺌다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 신상품 출시 오븐 조리 방식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

CJ프레시웨이의 학교급식 특화 브랜드 ‘튼튼스쿨’이 오븐 조리형 상품을 본격 확대한다. 기름 사용을 줄여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급식 종사자의 조리 환경 개선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신학기를 맞아 오븐 조리형 상품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의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리즈는 돈까스, 떡갈비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오븐 조리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인 ‘튼튼스쿨 오브닝 시리즈’는 ▲‘오브닝 더 바삭’ 4종 ▲‘오브닝 더 촉촉’ 3종으로, 메뉴 특성에 맞춰 식



튼튼스쿨 오브닝 더 바삭 별이 내리는 통살치킨. /CJ프레시웨이

감을 달리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오브닝 더 바삭’은 치킨, 까스류 중심으로 구성돼, 오븐 조리임에도 바삭한 식감으로 기존 튀김 메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

다. ‘오브닝 더 촉촉’은 너비아니와 떡갈비 등 반찬형 메뉴로 구성돼, 오븐 조리 시에도 촉촉한 식감과 육즙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오븐 조리에 최적화돼 별도의 튀김 공정 없이 조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급식 현장에서 조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메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오브닝 시리즈’는 학생 선호도가 높은 급식 메뉴를 오븐 조리 방식으로 구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름 사용을 줄이면서 급식 현장의 조리 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 물류거점 구축

K-뷰티 상품 ‘엔드 투 엔드’ 서비스

CJ올리브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블룸딩턴에 현지 첫 물류 거점인 ‘미국 서부센터’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는 약 3600㎡(1100평) 규모로, 올리브영을 거쳐 북미 전역에 유통되는 K뷰티 상품의 물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물류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올리브영은 이를 활용해 현지 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지원에 나선다. 자체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브랜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 지역 세포라 매장 내 ‘K뷰티 존’에 입점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전 물류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올리브영은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세포라와 파트너십을 체결, 직접 큐레이션한 ‘K뷰티 존’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블룸딩턴에 위치한 올리브영 미국 서부센터 전경. /CJ올리브영

오는 8월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선보이기로 한 바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5월 현지 매장 오픈을 앞두고 K뷰티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리테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K뷰티 유망 브랜드의 북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온, ‘뷰세라’ 기획전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15일까지 ‘뷰세라(뷰티 세일 라인업)’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뷰세라는 매 시즌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봄 시즌을 맞아 스프링 메이크업과 베스트 셀러 중심의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매일 공개되는 오늘의 특가 제품은 롯데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기획 상품 라인업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월·목·토 오전 10시에는 베스트 셀러를 1만 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체험단을 진행한다.

최대 3만 엘포인트(L.POINT)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뷰세라 쇼퍼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창립 12주년 기념 ‘해피버츨데이’

물가 부담완화 초점... 2000억 규모

SSG닷컴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

SSG닷컴은 15일까지 11일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해피버츨데이’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연중 최대 수준 물량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전면에는 이마트 상품력을 기반으로 한 신선식품이 배치됐다. 국내산 냉동삼겹살(1kg)을 1만9000원대, 냉장한우등심(300g)을 2만10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주요 축·수산·과일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당일 도정 햅쌀(10kg), 조선호텔 포기김치(5kg) 등 장보기 수

요가 높은 상품도 특가에 선보인다.

가공식품은 초특가, 생필품은 1+1 구성으로 체감 혜택을 높였다. 멸균우유, 간장, 식빵, 화장지 등 일상 소비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집중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쓱배송’ 상품은 당일 및 지정일 배송이 가능하며, 신선식품은 품질 불만족 시 환불·교환을 보장한다.

비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로보락 신제품 ‘S10 MaxV Ultra’를 특가에 선보이고, 나이키 러닝 의류, 르크루제 주방용품, 크리스찬 디올 뷰티 메이크업 컬렉션 등 인기 브랜드 행사도 병행한다. 숙박 상품으로는 신라모노그램 강릉 객실 패키지를 특가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무신사 아울렛’ 1호점 오픈

은평점에 약 480평 규모 조성

롯데백화점이 서울 서북권 패션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몰 은평점에 ‘무신사 아울렛’ 1호점을 열고 1030세대 집객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은평점 지하 1층에 약 480평 규모의 ‘무신사 아울렛’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에는 2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의류·잡화·뷰티 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무신사 걸즈’, ‘무신사 영’ 등 연령·취향별 존을 구성해 동선을 효율화했다. 아디다스, 푸마 등 스포츠 브랜드와 K-디자이너 브랜드를 함께 선보

인다.

리커머스 수요를 반영한 ‘무신사 유즈드’도 오프라인 1호로 도입했다. 무신사 검수를 거친 70여 개 브랜드의 중고 상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중심이던 중고 패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폴로 랄프 로렌, 노스페이스 등 세컨핸즈 수요가 높은 브랜드를 구성했다.

명품·뷰티 콘텐츠도 강화했다. ‘부티크’ 존에는 보테가 베네타, 자크뫼스, 메종 마르지엘라 등을 모았고, ‘뷰티’ 존에서는 메디필과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사람腸 닮은 세포모델로 임상 전 신약 독성위험 예측한다

생명연 국가아젠다연구소 연구팀 위장관 독성 예측 평가 플랫폼 구축

94% 정확도·100% 특이도 기록 경신편 전기저항 값 사람과 비슷 약물, 장벽약화 근본 원리 규명도

국내 연구진이 신약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전임상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세포 모델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해 임상 실패율을 줄이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국가아젠다연구소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사람의 장(腸)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한 세포 모델을 개발해 신약의 위장관 독성을 전임상 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평가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장관 독성이란 약물 투여 후 구토, 설사, 점막염 등 장 손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임상 중 치료 중단이나 용량 감소로 이어져 신약 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장의 보호 기능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손미영 박사(가운데)와 이하나 박사(오른쪽)과 유원동 박사(왼쪽).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사람의 장(腸)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한 세포 모델을 개발해 신약의 위장관 독성을 전임상 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평가 플랫폼을 구축했다.

먼저 약해진 뒤 염증과 조직 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위장관 독성 평가는 주로 대장암 유래 세포(Caco-2)를 사용하거나, 세포가 완전히 죽은 뒤에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방법은 정상 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의 보호 기능이 먼저 약해지는 초기 독성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간 장 상피세포(hIEC) 모델은 인간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정상 장 세포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와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 등 실제 사람의 장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들을 함께 갖추고 있다.

특히, 장의 보호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경신편 전기저항(TEER) 값이 실제 사람 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실험실에서도 사람 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hIEC 모델은 3차원 장 오가노이드로부터 동일한 세포 모델을 제작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항암제, 표적치료제, 소염진통제 등 임상에서 사용되는 17종의 주요 약물을 적용해 독성 예측 정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위장관 독성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특이도(Specificity) 100%를 기록해 안전한 약물을 독성이 있다고 잘못 판정하는 오류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또한 기존 방식으로는 항암제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초기 단계의 장벽 손상을 92%의 민감도로 잡아내 성능을 입증했다. 단순히 세포의 생존 여부를 넘어 장벽 기능 변화 자체를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유전자분석(전사체 분석)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약물이 장벽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리도 함께 규명했다. 분석 결과, 일부 항암제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사이를 단단히 연결해주는 세포 골격(Cytoskeleton) 및 접착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을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포가 죽지 않더라도 이를 지탱

하는 뼈대인 세포 골격이 먼저 약해지면 장벽 기능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임상 전 약물의 위장관 독성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간 기반 평가 플랫폼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임상 줄이고, 동물실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연구책임자인 손미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실제 인간의 장 기능을 정밀하게 모사한 모델을 통해 약물 유발 장 손상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또한 환자 맞춤형 오가노이드 기반 장 독성 정밀 예측 플랫폼으로의 활용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기초의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실험&분자 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2월 12일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생명연 주요사업,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과 과기정통부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metro



클래시스, 브라질 '메드시스템즈' 인수

(의료기기 유통그룹)

JL 헬스 지분 77.5%... 기업가치 100억 콜롬비아·아르헨 유통법인 인수도 남미 1.5만개 이상 고객접점 직접 확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가 5일 브라질 최대 의료기기 유통그룹 JL 헬스(JL Health)의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안드레아 리마(Andrea Gaeta Lima) 전 앨러간 에스테틱스(Allergan Aesthetics) 브라질 사업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며 중남미 지역 체제를 본격화한다.

JL Health의 기업가치 규모는 1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거래를 통해 클래시스는 메드시스템즈를 100% 소유한 JL Health의 지분 77.5%를 인수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콜롬비아와 아르

헨티나 유통법인도 100% 인수해 남미 주요 시장에서 직접 유통·영업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1만5000개 이상의 고객접점을 직접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시 점유율 확대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브라질 유통사 인수는 클래시스가 중남미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핵심 이정표다. 회사는 브라질 내 윌트라포머(국내명 슈링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차세대 블록버스터 장비 볼뉴머의 트렌드를 가속하는 한편, 퀴드세이 등 신제품의 시장 안착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선임된 안드레아 리마 메드시스템즈 CEO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회사 소비제,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20년 이

상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다.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AbbVie)의 계열사인 앨러간 에스테틱스에서 브라질 사업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며 중남미와 유럽 전반에 걸친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략적 확장을 통해 매출과 마진 성장을 견인했고, 실적 턴어라운드 주도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안드레아 리마 메드시스템즈 CEO는 "강력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래시스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브라질에서 혁신적인 미용 의료기기 기술과 임상 교육을 진행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브라질 법인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저용량 제품 품목허가

20mg 추가... 총 3가지 용량 라인업 전 연령대 환자에 최적화 맞춤형 치료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YUFILYMA)'의 저용량 제품인 20mg/0.2mL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허가로 유플라이마는 기존 40mg과 80mg에 이어 20mg까지 총 3가지 용량의 고농도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20mg 제형 추가로 저체중 소아 환자까지 세밀한 처방이 가능해져 의료진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 유플라이마는 기존에 확보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소아 크론병 등 12개 적응증 전체에 대해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전 라인업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전 연령대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플라이마 전 라인업은 주사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구연산염)을 제거하고,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형이 특징이다. 이러한 고농도 기술은 주사 시 느끼는 이물감을 최소화해, 통증에 민감한 소아 환자나 주사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의 투약 순응도를 개선했다.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글로벌 매출이 1년 만에 약 12조 6000억 원에서 6조 4000억 원 규모로 재편되는 등 바이오시밀러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이번 전 용량 라인업 완성을 기점으로 오리지널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고, 의료진에게는 폭넓은 처방 선택권을, 환자들에게는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한국콜마, 로봇으로 화장품 보존력 시험

처리속도 2.5배, 처리량 50% 늘어

한국콜마가 국내 최초로 화장품 보존력 시험에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제품 안전성 검증 역량과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의 일환이다.

보존력 시험은 화장품이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평가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상 생활 환경에서도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미국의 화장품규제대화법(MoCRA), 일반의약품(OTC) 규제, 유럽 화장

품 등록 제도 CPNP 등 각국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검증 항목이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 시험 처리 역량은 크게 향상됐다. 단순 반복 공정에 로봇이 투입되며 처리 속도는 기존 대비 2.5배 빨라졌고, 미생물 반응 확인 작업의 처리량도 약 50% 증가했다. 야간 무인 운영도 가능하다. 외부 시험기관 의뢰 물량을 연간 최대 80% 줄이고, 규제 준수를 위한 시험 성적서 발행의 속도와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는 향후 화장품 보존력 시험 과정에 로봇과 AI(인공지능) 기술을 단



한국콜마 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해 화장품 보존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콜마

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로봇으로 확보한 시험 시료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AI 기반 환경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과제의 일환으로 AI가 보존력 시험 최종 결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웅제약 '비즈 36.5' 전 임직원에게 제공

다나아데이터와 플랫폼 공동개발 건강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구현

대웅제약이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 '비즈 36.5'를 도입해 대웅그룹 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비즈 36.5는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특화 IT기업 다나아데이터가 공동 개발한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기존 건강검진 예약 기능에 인공지능 챗봇 '나만의 건강 AI코치'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건강검진 예약부터 결과 확인,

사후 건강관리법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플랫폼 내에 구현했다. 사내 건강관리 담당자의 실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임직원들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인 '나만의 건강 AI코치'는 복잡한 검진 결과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알려준다. 또 관련 진료과 및 의료기관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이청하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웃음콘서트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 웃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 웃음치유의 효과
- 일상 속 웃음 실천
- 웃음치료사 되기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창시자
황성현 원장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효성 “동반성장 확대”... 상생협력기금 160억 추가 출연

2013년 이후 누적 400억 넘어서
협력사 안전·ESG 역량 강화 구축

효성그룹이 상생협력기금을 160억원 추가 출연했다. 누적 출연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섰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효성그룹과 지난 4일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효성 황윤언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동참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과 ESG 역량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구축하



(왼쪽부터)효성 황윤언 대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 효성그룹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기협력재단

기 위해 추진했다. 효성은 향후 3년간 설비 개선,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출연 기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과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용품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또한 생태환경 복원 등 ESG 분야 지원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DMZ 지역 산림 훼손지 복원,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 시민 참여형 축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농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효성은 2013년 이후 매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서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변태섭 사무총장은 “효성그룹의 지속적인 출연은 협력사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상생 사례”라며 “재단은 출연 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언 대표는 “효성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동반 성장 활동을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매일유업, ‘건강친화기업’ 인증

매일유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제도이다.

/매일유업



이노비즈협, MS와 회원사 국내외 AX 지원

이노비즈협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회원사들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5일 경기 판교 협회 대회 의실에서 MS와 ‘이노비즈기업의 국내·외 AX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협회

삼성, 갤럭시S26 울트라 ‘최고 전시 제품상’ 유한양행, ‘세계 맥박의 날’ 참가

MWC26서 최고 혁신 선정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첫 탑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MWC 26)’에서 ‘최고 전시 제품상(Best in Show)’을 수상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산업 박람회다.

GSMA는 매년 MWC 기간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bal Mobile Awards)’를 열어 한 해 모바일 업계 혁신을 이끈 제품과 기술을 시상한다. 이 가운데 ‘Best in Show’는 애널리스트, 기자, 인

플루언서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전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영예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울트라가 첨단 하드웨어와 One UI 8.5 기반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동작하며, 한층 강화된 갤럭시 AI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필요를 예측해 도움을 주는 직관적 모바일 AI 경험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링을 선보였다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구병정 기자 koo@kjae.com

“심장건강 중요성 공유”

유한양행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세계 맥박의 날 2026’ 행사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1일 세계 맥박의 날을 맞아 대한부정맥학회가 주최한 글로벌 공공 인식 캠페인의 일환이다. 부정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양행은 스마트 인공지능(AI) 텔레메트리 ‘메모 큐’를 활용한 실시간 심전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에서 방문객의 심전도와 맥박을 측정하고, 룰렛 게임을 통해 ‘심박수 올리기·내리기’ 미션을 수행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청 하 기자 mlee236@

택배기사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검진’

한진 전국 180여개 터미널 방문

한진이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한다. 5일 한진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평일 낮 시간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택배기사들의 여건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검진 버스가 전국 180여 개 터미널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말 서울 및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천안·청주 등 충청권을 방문한다. 다음달과 5월에는 대구·부산을 포함한 영남권과 광주·목포 등 호남권을 거쳐, 6월에는 제주도 지역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검진 항목은 택배 종사자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뇌심혈관계 질환·심전도·혈액 검사·특수화학 검사·스트레스 진단·고혈압·간암 검사 등 총 60여 개의 정밀 항목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김승호 기자

정기선, 韓·필리핀 경제협력 민간외교 ‘앞장’

HD현대 회장, 수빅만 조선소 현장 점검

HD현대 정부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정기선 회장이 한국전정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하고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으며, HD현대필리핀조선(HD현대필리핀) 현장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일 마닐라 국립영웅묘지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부대를 편성해 7420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필리핀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5일에는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D현대필리핀을 방문해 직원 기숙사 신축 현장과 야드를 둘러보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주거와 의료, 치안 등 근무 여건을

/유혜은 기자 dhalehdale@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지난 4일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HD현대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4년 5월 미국 서버리스 캐피탈과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HD현대필리핀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HD현대필리핀이 건조하는 첫 선박인 11만 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건조를 위한 강제절단식을 열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

1일 명예세무서장 위촉

HJ중공업은 유상철 대표이사가 제 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중부산세무서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중부산세무서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김정현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관련 직무를 수행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사회적 귀감이 된 기업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인사

◆메디톡스그룹(메디톡스) ◇상무△김학우 ◇부장△김미혜 △김민규 △김진성 △류규민 △박해강 △이성욱 △이선영 △전혜원 △정효산(뉴메코) ◇이사△김민주 ◇부장△김대원 △임정훈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경영기획실장 최병택 △예금사업단장 김동주 △충청지방우정청장 광병진

부음

▲이건익씨 별세, 이서영(목원대 경영학부 교수)씨 모친상=4일 충남 당진시 설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041-354-4444

오늘의 날씨

3월 6일 (금)
음력 : 1월 18일

수도권 날씨
2~6℃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5, 동두천 1/7, 가평 0/7, 파주 -1/6, 서울 2/6, 양평 2/6, 인천 1/6, 수원 3/5, 용인 3/5, 평택 1/6, 백령도 0/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누구나 사기의 표적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진실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미덕이지만 낯선 상황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덜 받아들이고, 더 확인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특히 금전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거나 갑작스레 긴 급한 요구를 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스스로 자문하며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더라도 한번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사기의 시작을 막는 첫걸음이다.

사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도 사기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학력이나 지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한 순간의 방심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기 예방은 시작된다.

‘나는 관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매우 위험한 함정이다. 많은 사람이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낙관 편향’이라 불리는 심리적 함정이다. 낙관 편향이 나쁜 일은 남에게 일어나고 나는 관찮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다. 한 연구에서 성인 2000명에게 ‘당신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남들보다 낮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83%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기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라고 믿는 사이, 정작 사기 시도는 우리 모두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 분야에서 일하던 30대 회사원 A씨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기 뉴스를 잘 챙겨 보고 대비한다고 믿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피싱 문자쯤은 가볍게 무시할 줄 아는 센스를 가졌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다니던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는 그만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상대방은 A씨의 이름, 직책, 심지어 최근 거래 내역까지 줄줄이 대며 전화를 해왔다. A씨는 ‘아는 은행 직원이니 문제 없겠지’라고 안심했다. 알고 보니 그 정보들은 모두 해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을 통해 미리 수집한 신상 정보였다. A씨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면서도 ‘살마이 사람이 가짜일 리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신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니 안전계좌로 옮겨주세요’는 말에 속아 자신의 돈을 몽땅 이체하고 말았다. 평소 ‘나는 안 당해’하며 자신만만하던 태도가 오히려 함정이 되어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그 과신 때문에 기본적인 의심과 확인조차 소홀히 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 연인은 절대 날 속이지 않아’라는 낙관에 빠져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라지는 로맨스 스캠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수상해 보이는 정황인데도, 정작 본인은 ‘우리 사랑은 진실된 거야’라고 믿어 버리고 주변의 만류를 듣지 않는 일이 많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의 이런 과신을 노린다. 과도한 자신감 대신 건강한 의심과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기를 멀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현실성 없는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지원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정부의 2050 넷제로 목표에 맞춰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했지만 정부 지원 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

국내 상용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만난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1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해 중대형 전기화물차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생생내기식’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의 벽에 막혀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화물차와 수소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하고, 국토부 차급 기준 중형(적재중량 1.5~5톤)과 대형(5톤 이상) 전기화물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형급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에는 최대 6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심이던 상용차 전동화 정책이 중대형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는 분명하다.

하지만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여전히 가격 구조다.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기준 5톤 적재 카고 내연기관 차량은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인 반면, 최대 보조금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3억 10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중앙정부 보조금 최대 60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최대 6000만원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정책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수소전기트럭에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정책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되면 실제 혜택은 더 커진다. 동일한 상용차 영역에서 운행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수소전기트럭과 비교해 보조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은 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진 인프라와 소비 형태를 보면 수소전기트럭보다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게 시장 변화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도로 위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리는 중대형 디젤트럭이 친환경 트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정책 조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l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1월 18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합니다. 60년생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이 생깁니다. 72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4년생 타인의 힘이 필요로 하는 하루입니다.



49년생 성과는 후에 골고루 돌아옵니다. 61년생 음양의 조화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50년생 자만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62년생 스스로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74년생 오랜 고민이 해결됩니다. 86년생 기운이 강해 주변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5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63년생 얼마전부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53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켜 보세요. 77년생 평소와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합니다. 89년생 그룹에 행운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54년생 모임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열정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늦은 귀가는 절대 피하세요.



55년생 대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67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79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쓰세요. 91년생 거짓말은 바로 들리게 됩니다.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57년생 과로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두뇌회전이 빠른 하루입니다. 81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93년생 최근에 만난 사람을 조심하세요.



58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70년생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8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59년생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71년생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83년생 허황된 꿈에 빠지지 마세요. 95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운명 예측도 AI가

요즘은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면 모든 주제에 대해 막힘없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운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올해 신수 좀 알려줘, 내 사주에 관해 설명해 줘! 하고 명령을 하면 죄악~ 하고 설명해준다. 필자 역시 호기심과 함께 실험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AI에게 사주 감명을 물어본 적이 있다. 결론은 깊이 있는 통변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주명조의 원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기본적인 설명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필자가 대조해 본 결과, 인간의 운명예측을 표피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겠다 싶기도 하다.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는 AI의 등장으로 근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한 신도분은 무인 자율자동차인 ‘웨이모 택시’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며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도로에 운전석이 빈 차가 이리저리 잘도 다니는 것을 보고 공상이 현실이 된 것에 신기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현존하는 직종들 중에서 사라질 우선순위를 매기는 유튜브를 본 적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타격받을 직군이 하나둘이 아니니 어쩌면 종교인이나 명리학자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인간의 오랜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직 견고(?)하게 이어져 온 업종이 있다면 바로 인간 운명예측 아닐까? 인간은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할 때는 풀 한 포기보다도 심약하다. 섬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냥 재미 삼아 보는 것으로 인생의 진퇴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우선 자신의 사주명조를 잠시라도 감명한 후 경감과 회피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삶의 지혜라 볼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6		7		3
	4	9	4	8	1
5			9	3	
	7	1	2	6	
		3	7		2
7				9	5
		2	5		
9		2		6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8	8	9	1	6
6	8	1	7	9	2	8	9
8	9	2	6	1	9	7	8
2	1	6	8	2	9	8	9
9	9	7	2	8	1	6	2
2	8	8	9	6	7	1	2
1	6	2	9	9	6	8	7
9	2	8	1	7	8	2	9
8	7	9	2	8	9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파리의 심판’ 50주년... 진판델부터 알바리뇨까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4

1976년 당시 와인 양조 역사는 100년 정도 됐지만 전 세계 와인 시장에서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샤르도네 같은 국제 품종은 많이 재배되지 않았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진판델이 주로 재배됐고, 이외에는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고온 토착 품종 정도가 자라고 있었다.

설명만 듣고 보면 전 세계 와인 산지 가운데 어느 곳인지 짐작도 못 할 터. 답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다.

반전의 시작은 1976년 파리에서 열린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블라인드 테이스팅’, 이른바 ‘파리의 심판(Judgement of Paris)’이다. 명성을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했더니 ‘샤또 무통 로칠드’ 등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캘리포니아가 레드와 화이트 와인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는 물론 전세계 와인 업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올해로 파리의 심판이 열린지 딱 반세



미국 대표 와인 작가이자 교육가인 일레인 추칸 브라운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캘리포니아와인협회(CW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파리의 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기가 지났다.

미국 대표 와인 작가이자 교육가인 일레인 추칸 브라운(Elaine Chukan Brown)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캘리포니아와인협회(CWI)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파리의 심판 덕분에 캘리포니아 와인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파리 테이스팅의 유산(The Legacy of the Paris Tasting)’ 세미나에서는 총 10종의 와인이 선보였다. 왼쪽부터 갤리카 로릭 헤리티지 알바리뇨 2019, 알마 드 카틀레야 소비뇽 블랑 2024, 프리마크 아비 샤르도네 2023,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 2020, 허쉬 이스트 릿지 피노 누아 2019, 테라 와인 컴퍼니 바르베라 2024, 카민스 투 드림즈 그르나슈 2023, 마야카마스 까베르네 소비뇽 2003, 스탱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 2016, 랑게 트윈스 센테니얼 올드 바인 진판델 2017. /안상미 기자

전 세계 최상급 와인이라고 자랑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의 전 세계 모든 와인 산지의 가능성을 알리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국내에 수입되는 캘리포니아와인과 미수입 와인까지 총 340여 종의 와인이 선보이는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Alive) 테이스팅 2026’도 진행했다.

먼저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할 타이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품종으로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 와인으로 승부를 겨룬 파리의 심판을 말하며 진판델과 알바리뇨를 전면에 내세웠으니 말이다. 특히 알바리뇨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것을 아는 이조차 극히 드물다.

일레인은 “파리의 심판을 계기로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품종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며 “이전부터 재배한 진판델을 시작으로 파리의 심판을 거쳐 새로운 세대가 알바리뇨 와인을 만들어냈다고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파리의 심판 50주년을 기념하는 테이스팅의 시작은 ‘갤리카 로릭 헤리티지 알바리뇨 2019’다.

일레인은 “스페인의 해안가에서 자라던 알바리뇨를 캘리포니아 내륙의 고산 지대로 가져왔다”며 “생산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품종을 어떻게 탐구하고 개발시켜 왔는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알마 드 카틀레야 소비뇽 블랑 2024’

과 ‘허쉬 이스트 릿지 피노 누아 2019’, ‘테라 와인 컴퍼니 바르베라 2024’, ‘카민스 투 드림즈 그르나슈 2023’ 등도 모두 캘리포니아만의 특색을 갖추고 양조됐다.

역전의 주인공,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도네이도 마시지 않고 넘어갈 순 없다. 파리의 심판 화이트 와인 1위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와 레드 와인 1위 ‘스탱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이다.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 2020’은 과실향이 풍부하면서도 입안에서 단단하게 조여오는 산도가 살아있다. 1973년 당시의 양조 방식을 그대로 고수 중이다.

‘스탱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 2016’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정밀하다. 과실미와 균형있는 산도, 벨벳같은 질감까지 딱 떨어진다. 2016년이 나파밸리 역사상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레인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샤도네이를 경작하는 곳은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정도였지만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됐다”며 “파리의 심판이 남긴 유산은 전세계에 영감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단독개봉

베스트셀러 그림책,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

메가박스가 차별화된 뮤지컬 콘텐츠로 관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

메가박스가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의 투자·배급을 맡아 전국의 가족 관객을 사로잡고, 뮤지컬 콘텐츠 흥행을 이어간다는 목표를 5일 밝혔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은 백희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가족 뮤지컬 실황 영화다. 낡고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서 주인공 덕지가 선녀 할머니를 만나며 펼쳐지는 특별한 하루를 그린다. 유쾌한 상상력과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실황 영화로 재탄생했다.

무대의 현장감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섬세한 카메라 워크와 편집을 통해 영화적 호흡을 더했다. 관객들은 기존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든 배우들의 세밀한 연기와 감정선, 그리고 배우들의 시선을 포착한 시야까지 1열 중앙에서 보는 듯한 체험으로 작품을 더욱 깊게 관람할 수 있다.

메가박스는 앞서 ‘영웅: 라이브 인 시네마’, ‘엘리자벳: 더 뮤지컬 라이브’,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등 국내 대표 뮤지컬 실황 영화를 단독 수급, 상영해 기존 뮤지컬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 관객까지 끌어당기며 연이은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문화재단, ‘스토리업’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

오는 23일까지 모집... 앤솔로지 제작 등 예정

CJ문화재단이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의 단편영화 제작지원 부문의 2026년 지원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설립되어 대중문화 소외영역의 젊은 창작자들이 성장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존에 진행해 온 ‘스토리업’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에 새로운 형식을 더한 ‘앤솔로지 프로젝트 2026 스토리업 단편영화 공모’를 통해 변화를 시도한다. 공모 주제를 제시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단편영화가 보다 입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추후 최종 제작지원작 6편을 하나의 앤솔로지(합작물) 형태로 묶어 극장 개봉 및 OTT 배급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대통령의 야누스 리더십을 말하다

출생에서 대통령까지, 이재명 리더십 비판의 교과서 같은 책이 출간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진짜 이재명 진짜 이재명’을 펴냈다.

저자는 비판적 평전, 니체 관점에서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을 낱알이 파헤쳤다. ‘이재명 정치’는 6년간의 소년공 생활에 기초를 두고 형성됐다. ‘이재명 리더십’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무지막 지한 초인이기도, 권력의지의 화신이기도 하다.

6년간의 소년공 생활은 이재명 권력의지의 원천이다. 기득권에 대한 분노와 출세하겠다는 집념은 이재명을 최후의 정치적 승리로 이끌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도입했던 무상 교육, 무상 산후조리원, 청년 배당의 뿌리도 소년공 생활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노동 중시, 증시 부양도 현실의 이익을 중시하는 소년공 체험에서 파생한 정책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대한민국 1등이다. 그의 권력의지는 현재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세고, 과거 박정희와 견줄 만큼 강하다. 이재명은 박근혜도, 윤석열도 끌어내렸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힘으로 파악한다. 선출 권력 위위론은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의 핵심이다. 니체의 권력량이 위계를 결정한다는 통찰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이재명의 리더십은 야누스의 모습이다. 국정과 혁명이, 복수와 정의가 혼재되어 있다. 이재명은 빛의 혁명을 꿈꾼다.



진짜 이재명 진짜 이재명

엄경영 지음/아마존북스

이재명에게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은 1894년 동학혁명, 1980년 5·18, 2016년 12월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빛의 혁명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재명의 빛의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이재명의 권력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포스트 권력의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와 국정 기조에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을 해부하기 위해 니체의 초인, 권력의지 관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또한 독자들에게 대통령의 야누스 리더십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320쪽, 2만원.

/윤휘중 기자 yhj@



- ▲미 민주당, 텍사스주 예비 선거 투표자 공화당 처음 앞서 /사진 뉴시스
- ▲“트럼프 아들·김정은 딸 결혼시키려”...중동 전운 속 황당 ‘세계평화 밈’ SNS 화제

- ▲통상본부장, 메르코수르와 경제·통상 협력 확대 논의
- ▲‘기지 사용 갈등’美·스페인, ‘군사 협력’ 진실 공방 또 충돌

- ▲말레이시아서 브레이크 고장 열차 질주...주민들 기지로 대형 참사 막아
- ▲정부, ‘美쿠팡 주주 ISDS’에 로펌 선임...피터 앤김·아놀드앤포터



외식업계
바지락·볶동 등
제철메뉴 선택
L1



Life

세포모델로
신약 독성위험
예측한다
L2



시장변화 읽고, 고객 중심으로... 히트상품 만든 현장형 리더

CEO 와칭

이호성 하나은행장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던 지난 2022년. 카드업계는 여행 수요 회복을 앞두고 새로운 상품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트래블로그 카드'가 등장했다.

이 카드는 해외 결제와 환전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은 여행 특화 상품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에서 외화를 충전한 뒤 해외 결제나 현금 인출에 사용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용자가 급증했고,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필수카드'로 불리기 시작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기존 해외 결제 수익 구조를 흔든 상품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카드는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환전과 수수료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트래블로그 카드는 외화 충전 기반 결제 방식을 도입해 이 구조를 크게 단순화했다. 카드라기보다 '외화 지급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였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이 당시의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다.

◆ 현장에서 성장한 '영업통' 리더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이호성 하나은행장(62)은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꼽힌다. 대구 중앙상고 졸업 후 1981년 한일은행에서 금융 인생을 시작해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지점과 영업본부를 거치며 대부분의 경력을 현장에서 쌓았다. 강남서초영업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 등을 맡으며 고객 접점에서 성과를 내는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금융권에서는 트래블로그 카드의 성공 역시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의 결과로

이호성 은행장 프로필

1964년 12월 25일 출생
1982년 대구중앙상업고등학교 졸업
2007년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 학사

1981년 한일은행 입행
1992년 하나은행 입행
2015년 하나은행 강남서초영업본부장
2016년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
2019년 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장
2020년 하나은행 영업그룹 총괄 부행장
2023년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2025년 하나은행 은행장 취임



은행 지점·영업본부 거쳐 경험 쌓아
현장 중심, 고객 중심 경영으로 성과

코로나 후, 여행 수요회복 변화 읽어
해외여행 특화 '트래블로그 카드' 출시
쉬운 외화결제로 여행 필수카드 등극

취임 후 채권·외환 등 수익구조 넓혀
WM, 퇴직연금 등 수수료사업 확대
GNL 연계 등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해석한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읽고, 고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과 편의를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결국 은행장 발탁으로 이어졌다. 하나금융그룹은 고객 기반 확대와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리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행장은 취임식에서 "손님 중심 영업 문화 DNA를 회복하고, '리딩뱅크'로 도약하겠다"면서 "전 직원이 손님 중심 영업 마인드로 손님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자"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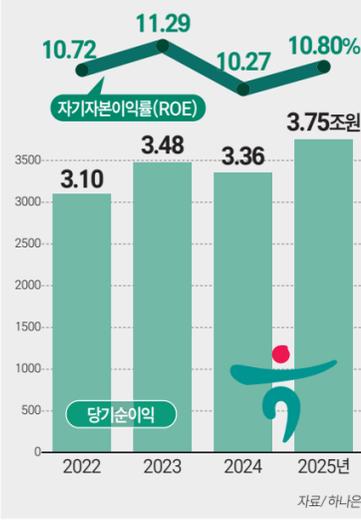
현재 이호성 체제의 하나은행은 고객 중심 영업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드 상품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은행 전체의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은행장은 전략가라기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라며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움직이는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 비이자이익 중심 수익 변화

이 은행장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건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

하나은행 당기순이익·ROE



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7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1조928억원으로 59.1% 급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채권·외환 등 매매·평가이익과 수수료 수익이 동시에 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도 점차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매매·평가이익(1조1441억원)과 수수료 이익(1조0260억원)이 동시에 늘며 채권·파생·외환 부문은 물론 방카슈랑스와 신탁보수, 증권중개 수수료까지 고르게 개선됐다. 카드업에서 쌓아온 비이자 수익 확대 경험이 은행 경영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예대마진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마진(NIM)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이자이익 확대가 일시적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자산관리(WM)와 퇴직연금, 투자은행(IB), 외환, 디지털 결제 등 수수료 기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GLN)와 모바일 플랫폼 연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업에서 쌓은 데이터와 마케팅 경험을 은행 플랫폼과 영업 채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하느냐가 '영업통 이호성 행장'의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이자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키우느냐가 향후 하나은행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선수단 오찬... "국민 누구나 국제대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진 뉴스
▲신상우호, 필리핀 3-0 완파... 여자 아시안컵 8강행 조기 확정

▲'홍련 2방' 호주, 대만 타선 공공 육교 개막전 3-0 승리
▲차범근축구교실 월회비 절반 깎는데 학부모 반발...왜?

▲'전쟁통' 이란 탈출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기제 "한국에 무사 도착"
▲예열 끝 한국, '1차전 징크스' 끊는다...체코전 필승 각오